

청년세대의 부정적 미래인식과 개선 방안¹⁾

박성원, 박현석 연구위원(국회미래연구원), 전주 교수(충남대)

문제 의식: 청년세대의 부정적 미래 인식

◇ “미래를 걱정하면서 지금을 낭비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청년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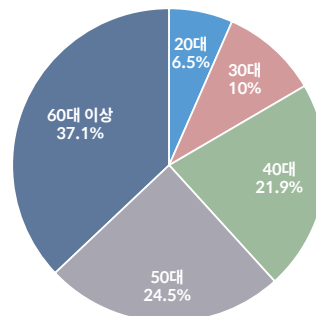
- 청년세대는 미래만 생각하면 현재 자신의 삶보다 못할 것 같은데 굳이 이 부정적 미래를 궁금해하면서 살아야 하느냐고 주장
- 미래를 바꿀 수 없다고 믿는 청년세대는 부정적 미래에서 벗어나는 것도, 긍정적 미래를 맞이하는 것도 상상하기 힘들어 함

◇ 국회미래연구원의 ‘미래정책의 국민선호 연구’(2022)에서 전국 3,000명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의 3가지 질문에 응답한 결과를 분석하고 청년세대의 미래인식 수준을 파악

- ‘15년 뒤 미래는 지금보다 더 좋아질까?(미래 낙관)’ ‘개인의 힘으로 미래사회를 바꿀 수 있을까?(미래 참여)’ ‘15년 뒤 내가 기대하는 미래가 실현될까?(미래 기대)’
- 미래를 낙관하고 참여하며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20대는 6.5%, 30대는 10%만 동의(표1 참조)
- 이는 40대 21.9%, 50대 24.5%, 60대 이상이 37.1%로 동의한 것과 대비
- 20대와 30대는 미래에 관해 낙관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않으며, 참여를 통해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회의적임을 드러냄

[표 1] 미래 인식의 연령별 분포

미래 낙관, 참여, 기대에 모두 동의한 비율



1) 박성원 외(2022), 「미래정책의 국민선호 연구: 이머징 시티즌과 미래대화」의 일부 내용을 요약하고 재정리

청년세대의 미래인식 구조 분석

◇ 20~30대 청년 21명을 만나 비관적 미래 인식의 구조적 이유를 분석

- 소그룹으로 나눠 3시간 내외 집중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
- 서울, 부산, 광주, 제주 등 10개 지역에서 거주하는 청년들로 남성 13명, 여성 8명 참여
- 이들은 직간접적으로 정부와 국회의 정책 과정에 참여한 경험을 갖고 있음
- 자신과 주변 청년들이 체감하는 어려움, 사회문제와 구조, 미래전망과 대안을 논의

◇ 청년이 제기한 문제1: 일자리와 주거 문제

“내가 될 하든 언제나 내쳐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계속 누군가보다 조금 더 잘해야지 잘 살 수 있다는 구조에서 살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뭔가 안정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지역에서 서울로 올라와 일하는 친구들이 훨씬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대구 사는 친구는 서울밖에 일자리가 없고, 그러니까 대출을 엄청 많이 받아서라도 어떻게든 수도권에서 집을 사려고 하더라고요.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서울에서 살기 위해 대출금을 갚기 위한 일자리라면 되는 거예요.”

→ 시사점: 새로운 산업구조에서 노동력은 기계로 쉽게 대체되고, 청년들은 동료 인간뿐 아니라 기계와도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상황에 놓임. 이러한 불가항력적 요인에도 노동 구조를 불안정 노동 또는 비정규 노동 중심으로 재편해 온 것에는 사회 공동의 책임이 있음

◇ 청년이 제기한 문제2: 자신의 성장을 도와줄 공동체의 부재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할 만한 사람이 (지역에) 남아 있지 않은 거죠. 청년 농업인은 조언을 얻을 수 있는 분들이 많은데 문화나 과학기술 쪽으로 조언을 얻으려면 아무도 없어요. 저도 (서울과 수도권으로) 나가게 되면 안 돌아올 것 같아요.”

“지역에 성장의 기회가 없다 보니 청년들이 더 온라인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온라인 공간에서는 남의 눈을 되게 많이 의식하게 되고 남들처럼 따라가야 하지 않나 생각해요. 그래서 지역 청년들이 몸과 마음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 시사점: 청년에게 주거의 문제는 집값의 문제뿐 아니라, 자신이 살아가는 지역에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 멘토나 동료들의 부재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됨

◇ 청년이 제기한 문제3: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

“조세 정책과 관련한 청년 정책에 참여했지만, 관료적 질서에서 새로운 변화를 끌어 내기에는 저 자신의 영향력이 부족함을 통감했어요. 세상은 원래 잘 바뀌지 않는 것이니, 이에 맞추어 저를 바꾸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닌가요.”

“솔직히 말해서 미래가 나아질 거는 잘 모르겠고요.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이 과거에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불공정하고 더 공고해졌다고 생각해요. 사회운동이나 어떤 진보적인 그룹도 주제를 시류에 따라 바꾸면서 결국 정책 결정은 기성세대가 하고.”

“저에게 미래는 터널이라고 생각해요. 터널은 처음 들어갈 때랑 나올 때의 풍경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풍경이 불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좋은 것일 수도 있겠지요. 근데 터널 나왔더니 계속 밤이고 그러면 어찌죠?”

→ 시사점: 정부든 정치권이든 청년의 의견을 형식적으로 소비하는 상황에서 청년들은 사회에 대해 기대하는 것도 없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 낙관하지도 않으며, 더이상 문제를 문제라고 볼 힘도 없어질 것으로 전망

청년세대가 바라는 미래

◇ 일상에서 변화를 상상하고 주도할 기회 확대

“요즘에 정치권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생활정치라고 하잖아요. 포도 값이 왜 굳이 올라야 할까. 포도 값이 오르지 않아도 나한테 돌아가는 게 많이 오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유통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게 정치인이잖아요. 또 휠체어 탄 장애인들은 저상버스가 올 때만 이용할 수 있는데, 사회가 조례로 만들어 증차한 거고. 생활정치를 통해 내가 불편한 것을 해소할 수 있고 좀 더 나은 발전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청년세대가 가져야 할 것 같아요.”



→ 인터뷰에 참여한 청년들은 정부 정책이 ‘청년들의 문제’를 고발하는 단편적인 접근을 벗어나야 하며, 청년들을 다면적인 정책 설계자로서 인정하고 이들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정책 설계의 장이 마련되어야 함을 공통으로 주장

→ 모든 공공정책의 결정 과정에 20~30대의 참여 비율을 50%로 맞추고 이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음

- 국회미래연구원에서 2019년 ‘한국인의 선호미래 조사연구’에서 전국의 시민 502명을 초청해 5시간 이상 우리사회가 바라는 미래를 논의할 때 20~30대의 참여자를 전체의 절반 가까이 채용
- 실제 인구 비율로 보면 20대는 전체 인구의 19.7%, 30대는 18.7%였으나, 선호미래 조사에 참여한 20대는 25.1%, 30대는 21.3%로 전체 참여자 중 46.4%를 차지
- 흥미로운 것은 토론 결과를 분석할 때 20~30대의 참여자 수를 인구비례에 맞춰 줄였어도 선호하거나 회피하는 미래사회 유형은 같았음(표2 참조)

(참고: 선호미래는 실현을 바라는 미래이고, 회피미래는 마주하고 싶지 않은 미래)

[표 2] 선호미래와 회피미래 선택 비율

구분	도전분배사회 (선호미래 1위)	안정성장사회 (회피미래 1위)
 인구 현황을 반영한 결과	43.0%	34.9%
 20~30대 과대 포집한 결과	42.2%	34.8%

(도전분배사회: 분배의 증시, 변화지향의 미래)

(안정성장사회: 성장의 증시, 현행유지의 미래)

- 결과는 같지만 20~30대 청년들이 미래사회의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 더 많이 참여했다는 점이 주목되며, 더 나아가 청년들이 중요한 사회적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에 더 많이 참여하고 의견이 반영된 경험을 축적해야 함

◇ 우리사회 난제로 꼽히는 3종 세트의 해소 필요

- ‘경쟁 지상주의’, ‘갈등 조장’, ‘수도권 집중’은 청년세대가 회피하고 싶은 3종 세트 난제임
- 이 회피미래는 다가오지 않기를 바라는 미래면서 이미 현실이 된 미래로서 청년세대를 불안하게 하고 미래를 걱정하게 만들고 있음
- 청년들의 회피미래상은 우리사회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사회적 파급력이 높을 재난급 신호여서 충분한 논의와 대안이 필요함